'에이스' 조준혁 "1회 실점 되레 긴장 풀렸다"

경남고 상대 7.2이닝 비자책 2실점
성영재 감독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

'역전의 명수' 타이틀이 군산상고에서 광주일고로 옮겨가는 걸까. 광주일고가 또 한 번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썼다. '에이스'인 3학년 조준혁(18)의 호투가 있어 가능한 결과였다.

광주일고는 30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72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동아일보사·스포츠동아·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 경남고와의 4강전에서 3-2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선착했다. 광주일고는 '우승 후보 0순위'로 꼽히던 경남고를 꺾으며 2010년 이후 8년만의 대회 우승을 노리게 됐다.

1라운드를 부전승으로 통과한 광주일고는 4강전까지 4승을 따냈는데, 이 중 3승이 역전극이었다. 주로 추격하는 입장에서 경기를 치렀음에도 강력한 뒷심을 과시했다. 광주일고 성영재 감독도 "매 경기 쫓아간다는 입장이다. 어린 선수들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똘똘 뭉치는 집중력으로 역전극이 이어지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광주일고는 1-0으로 앞선 1회부터 수비 실책으로 2사 1루 위기에 몰렸다. 벤치는 상대 4번타자 노시환에게 자동 고의4구 사인을 냈다. 2사에 베이스가 비어있지도 않은 상황이라 다소 의외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후속 이주형이 우중간 가르는 2타점 3루타를 때려냈다. 광주일고의 선택이 패착으로 흐르는 듯했다.

하지만 '에이스' 조준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1회 추가 실점하지 않은 조준혁은 7회까지 이렇다 할 큰 위기 없이 경남고 타선을 잠재웠다. 그 사이 타선도 응답했다. 6회 유장혁의 희생플라이로 균형을 맞춘 광주일고는 8회, '초고교급' 서준원 상대로 역전까지 이끌어냈다. 이날 경남고는 서준원을 비롯해 최준용, 이준호 등 팀내 최고의 투수진을 모두 기용하고도 조준혁 혼자 버틴 광주일고를 넘지 못했다. 이날 조준혁은 7.2이닝 5안타 2사사구 3삼진 2실점(비자책)으로 대회 2승째를 기록했다.

경기 후 성 감독은 "(조)준혁이가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다. 긴 이닝을 소화해준 덕에 결승에서 준혁이를 제외한 모든 투수를 낼 수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조준혁은 "경기 초반 위기는 내 꾀에 내가 말린 것이었다. 1회 2실점으로 오히려 긴장이 풀리며 남은 이닝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강전에 선발로 나선다는 것은, 결승전에 올라가더라도 등판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나에게는 오늘이 결승전이었다. 모든 걸 걸고 던졌다"며 "나 혼자 경남고를 상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뒤와 벤치에 동료들이 있었다. 그들의 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말했다.

목동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광주일고 조준혁

텍사스 추신수가 30일(한국시간) 세이프코필드에서 열린 시애틀과 원정경기에서 2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1회 1-0으로 앞서나가는 선제 홈런을 때린 뒤 덕아웃에서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시애틀(미 워싱턴 주) | AP뉴시스

추신수 9호포…9G 연속 멀티출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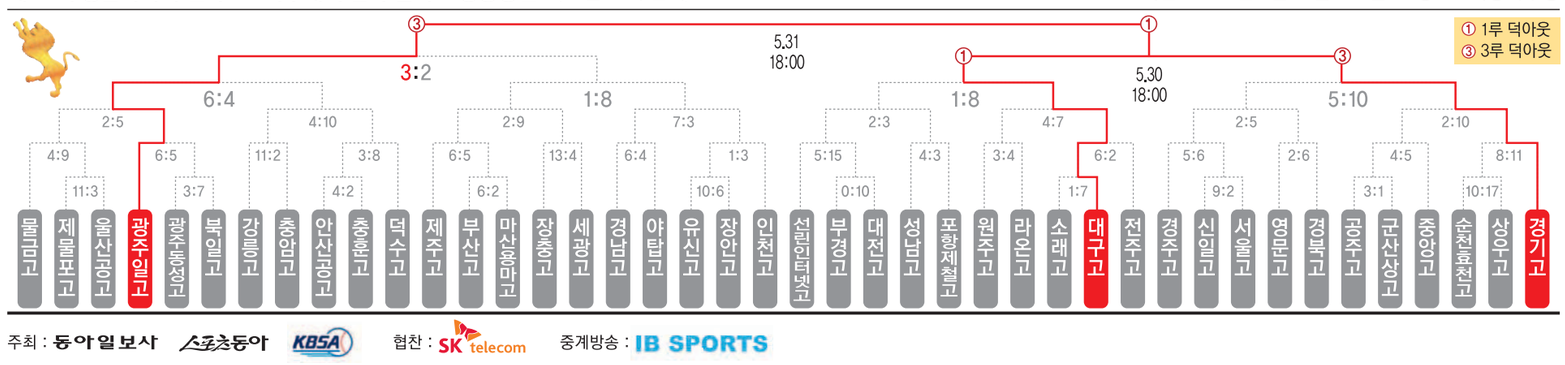
아시아 출신 빅리거 최다홈런의 주인공인 추신수(36·텍사스)가 시즌 9호 홈런을 때렸다. 추신수는 30일(한국시간) 미국 시애틀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원정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해 시즌 9호 홈런을 기록했다. 1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시애틀 선발 펠릭스 에르난데스를 상대로 시속 145km짜리 싱커(3구)를 받아쳐 가운데 펜스를 넘기는 1점 홈런을 쳤다.

지난 27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에서 끝내기 홈런을 터뜨리며 통산 176개의 홈런을 기록, 아시아 출신 빅리그 선수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된 추신수는 3경기 만에 홈런포를 가동시키면서 통산 177개로 아시아 기록을 스스로 다시 썼다.

4타수 1안타(홈런) 2볼넷을 기록한 그는 9경기 연속 멀티출루기록도 이어갔다. 시즌타율은 0.261. 텍사스는 시애틀을 9-5로 물리치고 2연패에서 벗어났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제 72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30일 19시 현재) **기간 :** 2018년 5월 16일~31일 **장소 :** 목동야구장



주최 : 동아일보사 스포츠동아 KBSA 협찬 : SK telecom 중계방송 : IB SPORTS

김하성, 청소하다 얻은 '몸관리 교훈'

반려견이 깨트린 화분 치우다 부상
"몸관리 책임감 느껴" 복귀 후 펄펄

김하성(23)은 넥센의 대체불가 자원이다. 언제든 4번타자로 출격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공격력과 안정된 수비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선수다. 2017시즌 KBO리그 10개 구단 내야수 가운데 최다인 1163이닝을 유격수 자리에서 소화한 것이 그의 가치를 설명한다. 넥센 장정석 감독도 늘 "(김)하성이에게 휴식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을 정도다.

그랬던 그가 다소 황당한 부상으로 13일간 전력에서 이탈해야 했다. 휴식일인 지난 14일 집에서 반려견이 깨트린 화분을 치우다 오른 손바닥이 찢어졌다. 본인 부주의에 따른 부상이라 구단에서 '페널티'까지 받았다. 당시 넥센은 박병호와 서건창, 이정후, 고종욱 등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겪던 터라 김하성의 이탈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넥센 김하성

지난 27일 1군에 복귀한 김하성은 부상 당시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복귀 후 2경기만에 3홈런을 몰아친 것은 그의 실전 감각이 녹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래서일까. 30일 경기 전 훈련에 나선 그의 몸놀림은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통증 없이 공격과 수비, 주루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의미가 크다. 아직 부상 부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다. 반창고를 붙이고 테이핑을 해 통증을 최소화하고 경기에 나서고 있다. 그는 "딱지도 내가 다 뗐다"고 했다. 혹여 손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김하성은 "잘 쉬고 온 덕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복귀 후 어떻게 시즌을 치러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한 시간이었다. 어찌 보면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많았다. 이제는 몸관리도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만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광주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29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타율	방어율	홈승률	득점	실점	홈런	도루	실책
1	두 산	51	33	18	0	0.647	-	2승	0.288	4.76	0.708	296	254	51	35	25
2	S K	51	30	21	0	0.588	3.0	1패	0.286	4.41	0.640	297	243	83	34	43
3	한 화	52	30	22	0	0.577	3.5	2승	0.274	4.44	0.615	245	253	48	29	34
4	L G	55	28	27	0	0.509	7.0	1승	0.298	4.46	0.630	286	257	52	29	31
5	K I A	52	26	26	0	0.500	7.5	1패	0.305	4.88	0.630	313	272	68	29	34
6	넥 센	55	27	28	0	0.491	8.0	1승	0.282	4.74	0.448	280	276	63	39	33
7	K T	53	25	28	0	0.472	9.0	2승	0.285	5.18	0.440	296	295	73	30	33
8	롯 데	51	23	28	0	0.451	10.0	1패	0.279	4.81	0.519	254	271	49	17	47
9	삼 성	54	23	31	0	0.426	11.5	3패	0.285	5.20	0.385	264	305	48	41	34
10	N C	54	19	35	0	0.352	15.5	2패	0.247	5.62	0.357	209	314	47	28	37

•Before & After 7-Game

팀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9화	30수	31목	1금	2토	3일	5화	6수
K I A	㉾	㉾	㉾	㉿	㉿	㉿	㉾	*넥	*넥	*두	*두	K	넥	넥
두 산	㉱	㉱	㉱	㉲	㉲	㉲	☂	*S	*S	K	K	K	넥	넥
롯 데	㉲	㉲	㉲	㉾	㉾	㉾	㉦	*LG	*LG	*한	*한	*한	NC	NC
N C	㉦	㉦	㉦	㉿	Ⓚ	㉿	㉱	한	한	*삼	*삼	*삼	*롯	*롯
S K	㉾	Ⓝ	Ⓝ	㉱	㉱	㉱	☂	두	두	*kt	*kt	*kt	*삼	*삼
L G	㉿	㉿	㉿	㉾	㉾	Ⓚ	㉲	롯	롯	*넥	*넥	*넥	*한	*한
넥 센	Ⓢ	Ⓢ	Ⓢ	㉲	㉲	㉲	Ⓚ	K	K	LG	LG	LG	*두	*두
한 화	㉮	㉮	㉮	Ⓢ	Ⓢ	Ⓢ	㉿	*NC	*NC	롯	롯	롯	LG	LG
삼 성	㉲	㉲	㉲	㉮	㉮	㉮	Ⓚ	*kt	*kt	NC	NC	NC	S	S
K T	Ⓚ	Ⓚ	Ⓚ	㉦	㉦	㉦	㉱	삼	삼	S	S	S	*K	*K

○=승 ●=패 □=무 *=홈경기

•팀간승패-남은경기

팀	KIA	두산	롯데	NC	SK	LG	넥센	한화	삼성	KT
KIA	■	3-0-3	1-0-3	4-0-2	4-0-1	4-0-2	4-0-3	0-0-5	3-0-2	3-0-5
두산	10	■	5-0-1	4-0-1	3-0-2	5-0-0	2-0-3	3-0-3	6-0-2	2-0-3
롯데	12	10	■	3-0-2	3-0-4	3-0-4	3-0-3	2-0-3	1-0-5	4-0-1
NC	10	11	11	■	1-0-5	2-0-6	3-0-3	3-0-3	4-0-2	1-0-5
SK	11	11	9	10	■	2-0-3	4-0-2	5-0-1	3-0-2	4-0-2
LG	10	11	9	8	11	■	4-0-2	1-0-5	4-0-2	4-0-2
넥센	9	11	10	10	10	10	■	4-0-4	3-0-3	4-0-1
한화	11	10	11	10	10	10	16	■	3-0-2	3-0-2
삼성	11	8	10	10	11	10	16	11	■	3-0-4
KT	8	11	11	10	10	10	16	11	9	■

(승-우- 패순) *팀간경기없음

퓨처스리그 〈30일〉

•팀순위

북부리그							남부리그						
순위	팀명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순위	팀명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경찰	39	25	11	3	0.694	-	1	한화	39	20	17	2	0.541	-
2	SK	38	20	15	3	0.571	4.5	2	롯데	40	21	18	1	0.538	-
3	고양	39	20	16	3	0.556	5.0	3	상무	39	18	18	3	0.500	1.5
4	LG	37	16	18	3	0.471	8.0	4	KT	40	15	17	8	0.469	2.5
5	화성	37	16	20	1	0.444	9.0	5	KIA	41	17	20	4	0.459	3.0
6	두산	38	11	22	5	0.333	12.5	6	삼성	37	14	21	2	0.400	5.0

•경기결과

	팀	1	2	3	4	5	6	7	8	9	R	
벽제	SK	1	2	1	0	0	1	1	0	0	6	2시간50분
	경찰	1	0	2	4	0	0	3	0	X	10	

승 임대한 패 조성훈
홈 김태군(7회 3점 경찰)

	팀	1	2	3	4	5	6	7	8	9	R	
고양	LG	0	0	0	2	0	0	0	0	2	4	2시간44분
	고양	0	0	3	0	0	0	0	0	2	5	

승 이준평 패 배민관
홈 서상우(4회 2점) 강승호(9회 2점 이상 LG)

	팀	1	2	3	4	5	6	7	8	9	R	
상동	KIA	3	0	0	0	0	0	2	0	0	5	3시간1분
	롯데	2	1	0	0	1	5	1	1	X	11	

승 이인복 패 고영찬
홈 김석환(1회 3점 KIA) 임종혁(1회 1점 롯데)

	팀	1	2	3	4	5	6	7	8	9	R	
익산	한화	0	0	0	0	0	0	0	1	0	1	2시간47분
	KT	0	0	0	0	1	0	0	0	0	1	

홈 김지열(5회 1점 KT)

메이저리그 〈30일〉

•아메리칸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보스턴	38	17	1	클리블랜드	28	25	1	휴스턴	35	21
2	뉴욕Y	34	17	2	디트로이트	24	30	2	시애틀	33	21
3	탬파베이	27	26	3	미네소타	22	28	3	LAA	30	25
4	토론토	25	30	4	캔자스시티	19	36	4	오클랜드	28	27
5	볼티모어	17	38	5	시카고W	16	36	5	텍사스	23	34

•내셔널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애틀랜타	32	22	1	밀워키	35	21	1	콜로라도	30	25
2	워싱턴	31	22	2	시카고C	29	22	2	애리조나	28	26
3	필라델피아	30	22	3	St.루이스	29	23	3	LAD	25	29
4	뉴욕M	26	26	4	피츠버그	28	26	4	샌프란시스코	25	30
5	마이애미	20	34	5	신시내티	19	37	5	샌디에이고	23	33

•경기결과

LAA	9 - 2	디트로이트	시카고C	8 - 6	피츠버그
클리블랜드	7 - 3	시카고W	샌디에이고	9 - 5	마이애미
캔자스시티	2 - 1 (연장14회)	미네소타	워싱턴	3 - 2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6 - 1	LAD	콜로라도	11 - 4	샌프란시스코
탬파베이	4 - 3	오클랜드	텍사스	9 - 5	시애틀
애리조나	5 - 2	신시내티	애틀랜타	7 - 6	뉴욕M
뉴욕Y	6 - 5 (연장10회)	휴스턴	St.루이스	6 - 1	밀워키
보스턴	8 - 3	토론토			

아마추어 경기결과 〈30일〉

사이클 ●2018 투르 드 코리아(군산-천안)
•1구간 개인 순위=① 최형민(한국), ② 페리(캐나다), ③ 트베트코프(루마니아)

조정 ●제 60회 전국 조정 선수권대회(탄금호 조정경기장)
•싱글스컬 남자 고등부 결승전=① 김종민(국원고A), ② 노무영(국원고B), ③ 강영락(장성하이텍고A)
•싱글스컬 여자 고등부 결승전=① 유자경(서울체고A), ② 박채연(충주여고A), ③ 김종은(충주여고B)
•더블스컬 남자 고등부 결승전=① 박근서,민성호(광주체고), ② 강영락,윤동석(장성하이텍고A), ③ 노무영,어정수(국원고)
•경량급 싱글스컬 여자 일반부 및 대학부 결승전=① 송지선(한체대A), ② 노서진(부산항만), ③ 박인수(포항시청A)
•경량급 싱글스컬 남자 고등부 결승전=① 윤동석(장성하이텍고A), ② 권민석(서울체고A), ③ 황윤성(수성고A)
•에이트 남자 일반부 및 대학부 결승전=① K-water, ② 용인시청, ③ 충주시청

경기 결과

프로야구 〈31일〉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SK (-)	〈잠실〉	두산 (-)	NC (-)	〈대전〉	한화 (-)
오후6시30분, KBSN스포츠			오후6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대전 CMB, 대전방송-R, KNN-R, 대전MBC-R		
KT (-)	〈대구〉	삼성 (-)	넥센 (-)	〈광주〉	KIA (-)
오후6시30분, SBS스포츠, 대구방송-R			오후6시30분, SPOTV, 광주 CMB, KBC-R		
LG (-)	〈사직〉	롯데 (-)			
오후6시30분, SPOTV2, KNN-R, 부산MBC-R					

아마추어 경기예고 〈31일〉

야구 ●2018 KBO 퓨처스리그
•한화-KT(익산), KIA-롯데(상동), LG-고양(고양), SK-경찰(벽제), 상무-화성(화성), 삼성-두산(이천 두산, 이상 오후1시)
●제 72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목동야구장,오후6시)

축구 ●2018 내셔널 축구 선수권대회(강원도 양구)
•B조=강릉시청-경주한수원, 목포시청-대전코레일(이상 오후4시)

농구 ●2018 KUSF 대학농구 U-리그
•남자부 A조=한양대-성균관대(서울,오후5시)
•남자부 B조=상명대-동국대(천안,오후5시)

배구 ●2018 FIVB 여자 발리볼 네이션스리그

배드민턴 ●제 61회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전남 영암,강진,오전9시)

탁구 ●2018 ITTF 월드투어 플래티넘 중국오픈(중국 선전)

정구 ●2018년 한국 주니어 대표 선발전(전북 순창)

사이클 ●2018 투르 드 코리아(천안-영주,오전9시30분)